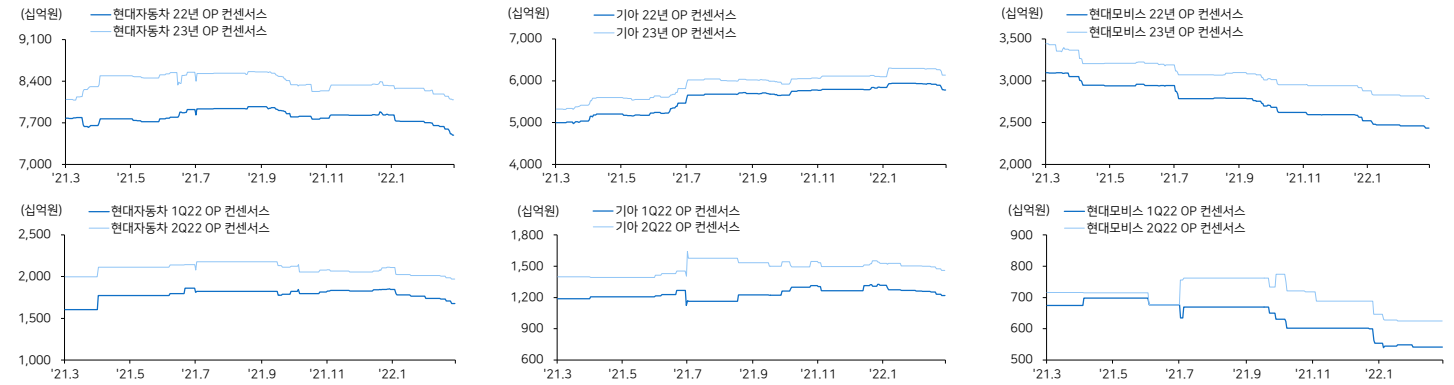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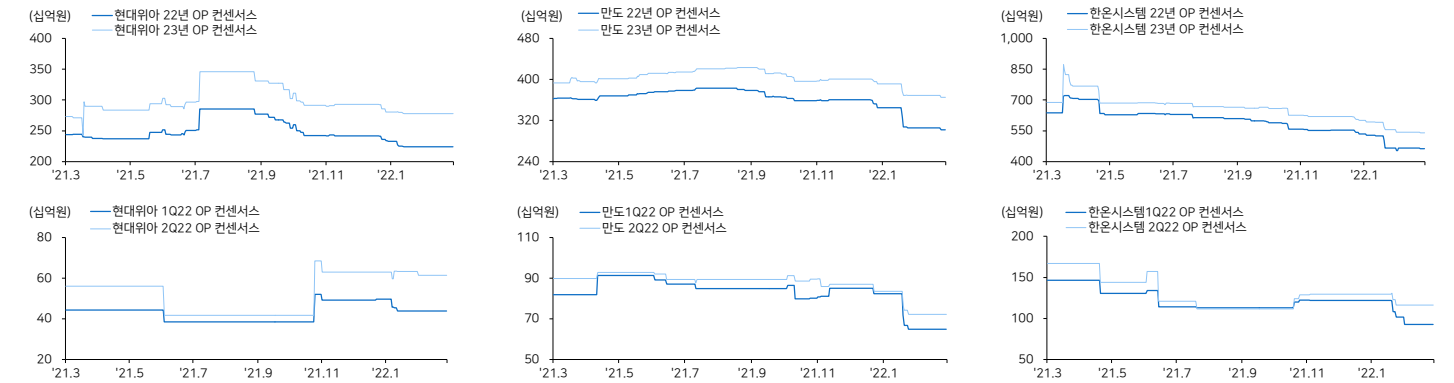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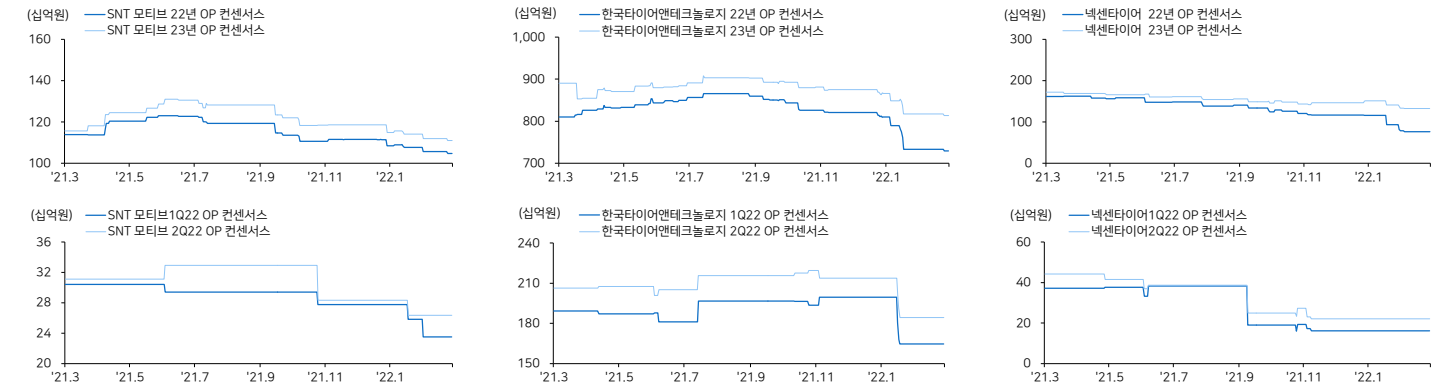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혼류생산' 본격 가동...한 라인서 10차종 만든다 (한국경제)

현대차는 오는 8월부터 울산3공장에 다차종 생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오는 4월 말~5월 초, 7월 말~8월 초 두 차례 공사를 진행할 예정. 시범도입 후 타 국내공장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며, 인기에 따라 유연한 생산 조정이 가능할 전망.
<https://bit.ly/3DghUH2>

"지진에 웨이퍼 부족까지..." 반도체 수급 정상화 자주 미뤄진다 (디지털투데이)

대만 현지 언론은 지난 23일 새벽 대만 남동부 화롄 해역에서 진도 6.6 규모 지진이 발생, 인근 TSMC, UMC 등 반도체 생산라인 일부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함. 생산라인 복구는 얼마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됨.
<https://bit.ly/3qGjXH4>

GM will idle Indiana truck plant for two weeks over chips shortage (Reuters)

GM은 지속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픽업트럭을 조립하는 인디애나 주 공장이 4월 4일부터 2주간 유휴 상태라고 밝힘. GM은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중 생산과 인도량이 반도체 공급 측면에서 더 나은 상황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JkyQXv>

XPeng's City NPG to be launched this year will outperform Tesla FSD, CEO says (CNEV Post)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Xpeng CEO는 올해 출시될 예정인 Xpeng의 자율주행 SW인 NPG가 Tesla FSD 보다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전 버전인 Xpilot 2.5는 사용자의 누적 주행거리가 2,000만 km에 달한다고 밝힘.
<https://bit.ly/3NshXIQ>

쏘카-현대차, 커넥티드 카 SW 운영체제 연계한다 (ZDNet Korea)

쏘카가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OS 협력에 MOU를 체결함.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 모델에 ccOS를 적용한데 이어 올 연말부터 출시하는 현대차·기아 모든 신차에도 ccOS를 적용할 예정.
<https://bit.ly/3LjnBGT>

중고차 1대당 판매수익, 신차보다 커...반도체 부족에 가격상승 우려 (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중고차 판매 수익이 완성차 판매 수익보다 큰 것으로 조사됨. 2019년 기준 미국 중고차 대당 수익은 2,300달러로, 신차 1대(1,200달러)보다 높음.
<https://bit.ly/31DQGAP>

Lacking wire harnesses from Ukraine, Volkswagen delays ID.5 launch (Reuters)

폭스바겐은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드하네스 공급차질로 ID.5 전기차 출시를 5월 첫째주로 한달 연기한다고 밝힘. ID.5는 폭스바겐의 Zwickau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 주 재개될 예정.
<https://reut.rs/3Jlf4e1>

Tesla sends out 'Cyber Rodeo' Invites for Giga Texas opening (electrek)

테슬라는 4월 7일로 예정된 텍사스 공장 오픈기념행사인 'Cyber Rodeo'라는 이벤트 초대장을 발송하기 시작함. 기가팩토리 인의 인종 지연으로 인해 기가 텍사스와 기가팩토리는 비슷한 시기에 본격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6BIs9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